

< 자이툰부대 장병에게 보내는 격려서신 >

날짜 : 2005-02-09

친애하는 자이툰 부대 장병 여러분,

오늘은 우리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. 이국땅에서 보내는 명절이라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.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, 전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.

두 달 전, 여러분을 만났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.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국군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.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.

여전히 긴장되고 힘든 일이 많지요? 수시로 보고는 받고 있지만, 건강은 괜찮은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늘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.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치하와 위로를 보냅니다.

앞으로도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확신합니다.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군의 위상을 한층 드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안전한 가운데,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여러분이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흘린 땀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. 그런 만큼 지금 여러분의 일 하나 하나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